

‘지역사회기반 참여적 연구’에서 ‘의식화’ 수단으로서

‘연극적 활동’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검토

송현성 (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목차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이론적 검토
4. 실천적 검토
5. 결론

1. 연구 배경

- *Wallerstein* 등은 연구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지역사회 내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지역사회구성원들은 느끼기 힘들었고, 이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연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Nina Wallerstein et al., 2017*).

한국 사회에서도 건강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 경제적 수준, 교육, 직업, 지역 등에 따라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짐작하고 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을 뿐, 어떻게 이런 불평등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지역사회기반 참여적 연구활동(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은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Patricia Leavy, 2012/2015).*
-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연구활동의 공동 주체로서 함께 지역사회 내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사회기반 참여적 연구활동(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 *CBPR에는 하나의 정형화된 연구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참여자, 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학문의 연구방법들이 혼합되어 만들어진다고(유승현, 2009; Nina Wallerstein et al., 2017).*
-

CBPR은 하나의 연구 방법이라기보다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접근법으로 보기도 합니다(Nina Wallerstein et al., 2017). 즉, 표준화된 연구 절차가 있고 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CBPR의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접근하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맥락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Nina Wallerstein et al., 2017).

이는 학문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CBPR의 특징이지만 한편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연구활동가에게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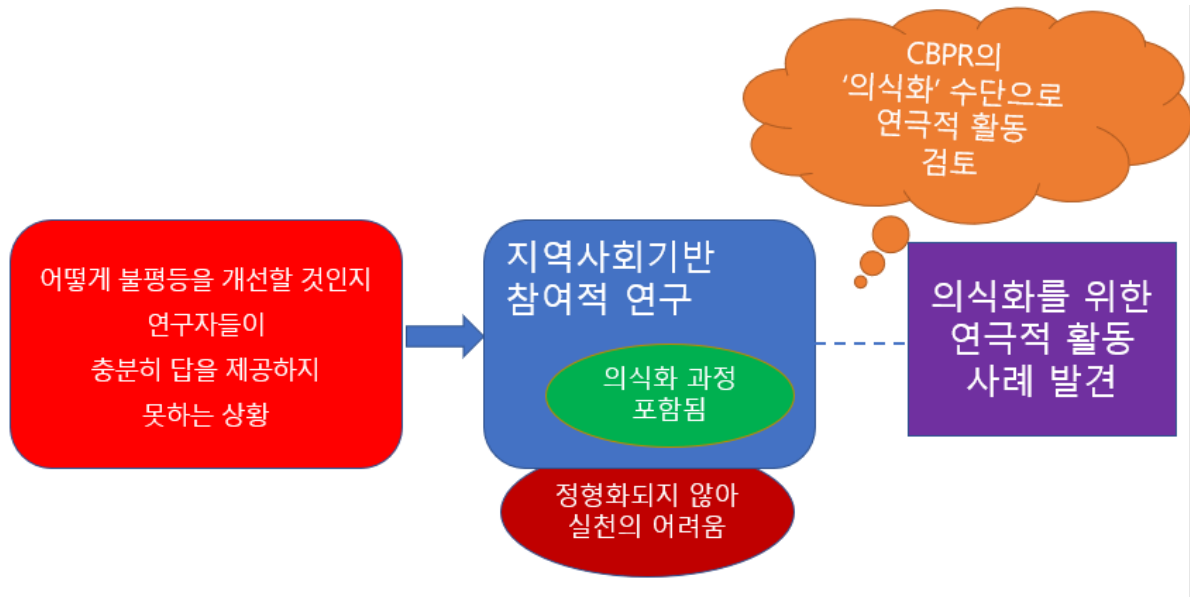
한편, CBPR은 연구활동가들이 지역사회 당사자들과 함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식화'의 과정을 포함합니다(김새롬, 2019).

-
- *의식화 (conscientization)*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모순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현실의 억압적 요소들에 맞서 행동하는 것 (파울로 프레이리, 2018)

'의식화'는 파울로 프레이리(2018)가 주장한 개념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화'를 이루는 실천 방법 중 하나로 '연극적 활동'이 있습니다. 실레로 아우구스트 보알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영향을 받아 민중들이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살 수 있게 하는 의식화 운동의 하나로서 "억압된 사람들의 연극(theatre of the oppressed)"을 기획하고, 실천했습니다(서나영, 2017)

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배경으로 CBPR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연극적 활동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즉, '연극적 활동'을 지역사회기반 참여적 연구의 '의식화' 수단으로써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론적-실천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3. 이론적 검토

-지역사회기반 참여적 연구-

파울로 프레이리(2018)는 사람들이 불평등한 상황에 순응하거나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억압자가 되어버리는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기존의 관념을 넘어선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의식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은행저금식 교육방식을 비판하며 문제제기식 교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이러한 문제제기식 교육을 하기 위한 주제 또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얻기 위한 연구활동을 하였고, 이것이 CBPR 실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지역사회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CBPR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 CBPR 분석

표면적 현상	내재적 과정
* 특성 : 가변적	* 특성 : 변하지 않음
* 주체 : 연구자	* 주체 : 시민
1. 지역선정 2. 이차적 문헌 검토를 통한 예비지식 획득 3. 지역 주민들과 비공식적 회의를 열 (연구의 이유, 진행방법, 용도를 공유) 4. 회의 참가자(주민)들 중 연구를 같이할 동료를 찾음	-
5. 지역을 관찰	① 복잡하고, 난해한 현실 인식
6. 관찰한 것을 문서화(coded)하기 : 그림, 사진 등 현실을 이차적으로 가공	② 추상적(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가 지 측면 중 특정한 측면만 가려내어 포착)이고, 외 부화된 표현하기 => 상황과 자신을 분리하기 (현실 속 자기 인식) => 상황을 분할하기 (조각난 현실 속 상호작용 발견)
6. 평가회의 : 문서화된 결과를 가지고 지역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이를 기록하기.	③ 타인과 서로의 인식 교류(자극) => 타인의 고찰을 통해 자신의 인식에 대한 재인식 => 분할된 현실이 다시 모여 전체로 돌아감 ④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난해하고, 복잡한 현실이 객관적-문제적 상황으로 인식) ⑤ 실험되지 않은 가능성 인식 ⑥ 실험행동 ⑦ 잠재적 의식이 현실적 의식을 대체 (의식화)
7. 기록을 보면서 연구자들이 교육 주제를 뽑 음(모순 발견) 8. 문제제기식 교육 진행(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 : 모순에 대한 인식이 민중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극적 활동 (Theatre for living)-

우선, 연극과 연극적 활동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연극

: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연 행위

(관객과 배우의 구별이 명확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극적행위를 전시하는 활동)

· 연극적 활동

: 작업의 목표를 그 결과물보다 함께하는 과정 자체에 두는 과정 중심적인 극적 활동

: 관객과 배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예시) 연극치료, 교육연극, Theatre for living, theatre of the oppressed 등

본 연구에서는 데이비드 다이아몬드의 Theatre for living을 바탕으로 연극적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트 보알은 1960년대부터 “억압된 사람들의 연극(theatre of the oppressed)”을 통해 억압에 적응한 시민들의 습관화된 몸과 정신을 일깨우며 시민사회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활동 중 하나가 데이비드 다이아몬드의 “살아있는 것들을 위한 연극(Theatre for living)”입니다.




Theatre for living은 커뮤니티와 신체적-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를 넘어선 깊은 대화를 나누는 활동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①평소에 인식조차 못했던 억압을 인식하고, 이를 신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게임 및 신체적 활동을 하고

②표현된 몸짓을 하나의 상황극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③상황극 중에 관객(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개입하며 상황 속 자신을 변형해보는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다이아몬드 Theatre for living 분석

표면적 현상	내재적 과정
* 특성 : 가변적	* 특성 : 변하지 않음
* 주체 : 프로젝트 진행자	* 주체 : 시민
1.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관계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 2. 프로젝트에 참가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 그 이슈 안에 살고 있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을 모집함.	
3. 커뮤니티 워크숍 - 바닥의 못을 다함께 확인 - 자기 소개 - 그라운드를 만들기 - 각종 아이스브레이킹 	**극적 현실로 이동할 준비 안전한 공간 만들기 (물리적, 관계적)
- 각종 게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감고 손찾기 ▪ 조각상 만들기 ▪ Point and turn ▪ 눈감고 넘어지기 ▪ Pus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의 감각 깨우기(활성화) : 감각의 감수성 증진 ▪ 몸으로 표현하는 연습 : 언어를 넘어선 소통 ▪ 패턴화된 몸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 새로운 생각, 행동 ▪ 공동체 의식 형성 : 유대감과 신뢰 형성 ▪ 연극적 요소 습득 : 캐릭터간 갈등 관계, 캐릭터와 배우 구분 등
- 고정된 이미지(조각 군상) 만들기 	**극적 세계와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외부화된 표현하기 - 공통된 이슈에 대해 상황을 분할 - 상황 속 자기 인식
- 이미지 활성화(상황극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의 독백 ▪ 욕구와 두려움 묻기 ▪ 비밀생각 묻기 ▪ 박수에 따라 몸 움직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의식의 언어화 - 무의식의 외면화
- 상황극에 관객 개입 및 토론	**극적 세계 탐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교류 - 실험 행동 - 의식화
- 전체를 돌아보는 성찰 - 온몸 털기 - 각종 마무리 의식	**극적 현실에서 일상의 현실로 안전하게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적 탐험과정에서 느끼고 발견한바를 공유 - 역할(캐릭터) 벗기 - 극적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어지기

-CBPR 과 연극적 활동의 비교-

파울로프레이리 CBPR	데이비드다이아몬드 Theatre for living
1. 복잡하고, 난해한 현실 인식	
2. 추상적이고, 외부화된 표현하기 => 상황과 자신을 분리하기 (현실 속 자기 인식) => 상황을 분할하기 (조각난 현실 속 상호작용 발견)	**극적 세계와의 만남 - 추상적, 외부화된 표현하기 - 공통된 이슈에 대해 상황을 분할 - 상황 속 자기 인식
	- 잠재의식의 언어화 - 무의식의 외면화
3. 타인과 서로의 인식 교류(자극) => 타인의 고찰을 통해 자신의 인식에 대한 재인식 => 분할된 현실이 다시 모여 전체로 돌아감	**극적 세계 탐험 - 인식 교류 - 실험 행동 - 의식화
4.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 (난해하고, 복잡한 현실이 객관적-문제적 상황으로 인식)	
5. 실험되지 않은 가능성 인식	
6. 실험행동	
7. 잠재적 의식이 현실적 의식을 대체 (의식화)	
	**극적 현실에서 일상의 현실로 안전하게 복귀 - 극적 탐험과정에서 느끼고 발견한바를 공유 - 역할(캐릭터) 벗기 - 극적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어지기

-공통점-

: 추상적이고 외부화 된 표현하기, 상황을 분할하기, 상황 속 자기 인식, 인식교류의 과정이 있음.

-차이점-

- 'Theatre for living'은 몸을 통한 표현, 잠재의식의 언어화, 무의식의 외면화 과정 있음.
- 파울로프레이리의 CBPR에서는 '실험 행동'의 기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반면, 'Theatre for living'은 '실험 행동'의 기회를 극적 세계를 통해 명확하게 제공함.

4. 실천적 검토

일자	구분	주요내용
2018.08	Theatre for living 트레이닝 워크숍	
2018.11	시민참여형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의사소통 실습 워크숍	Theatre for living 워크숍 내용 공유
2019.02	시민참여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 방법론 워크숍 1 차	페다고지 살펴보기
2019.03	시민참여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 방법론 워크숍 2 차	시민참여연극 사례(Theatre for living)
2019.04	시민참여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 방법론 워크숍 3 차	시민참여연극 실습 1
2019.04	시민참여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 방법론 워크숍 4 차	시민참여연극 실습 2
2019.06	시민참여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 방법론 워크숍 5 차	워크숍 회고
2019.06	피스모모 평화 교육 워크숍 참여	연극적 페다고지를 활용한 평화교육

위와 같이 연극적 활동을 CBPR에 적용하기 위하여 워크숍에 참가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Theatre for living의 이미지 활성화 부분부터는 정형화된 절차와 방법만 따르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단기간에 이를 습득하여 실제로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연극적 활동'을 통해 꼭 연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연극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을 활용한 소통, 특히, 몸에 기반한 소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CBPR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OERS 모델, 피스모모 평화교육 입문과정 12기 교육자료 참조>

단계	내용
Do(활동)	주민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을 상징하는 몸 활동을 한다.
Observe(관찰)	주민들은 몸 활동을 하며 자신과 상황을 관찰한다.
Exchange(대화)	관찰 후 느낌과 경험을 나눈다.
Reflection(성찰)	느낌과 경험을 현실과 연계하여 생각함으로써 성찰한다.
Synthesis(종합)	함께 나눈 이야기기를 종합하여 나눈다.

단계	내용
Do (활동)	인형이 되고, 조종자가 되어 활동을 해 본다.
Observe(관찰)	인형을 조종하면서 인형을 관찰한다. 인형을 조종자로서 조종하는 나를 관찰한다. 다른 인형과 조종자들을 관찰한다.
Exchange(대화)	활동을 해보면서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나눈다. 인형일 때 어땠는지, 조종자일 때 어땠는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Reflection(성찰)	인형극 활동을 해석해보며 현실에서의 교육경험과 교육적 상황을 성찰한다.
Synthesis(종합)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재료 삼아 '교육'과 '권력'에 대한 각자의 배움을 종합한다.

5. 결론

불평등한 사회내에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은 결국 몸으로 체현되고, 건강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시민건강연구소, 2018).

일상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이 개별적 사건을 넘어서서 반복적 특징을 갖는 것이라면 이는 구조화되었다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고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개인의 행동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구조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대훈,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당사자)의 참여와 성장없이 외부의 구조적 개입(정책 및 제도 개선)만으로 어떠한 불평등 개선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구조적인 변화만 강조한채 그 구조를 재생산해내는 사람들의 패턴화된 행동(관습적이고 관성적으로 고정된 틀 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성찰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다른 이름과 형태로 그러한 문제가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David Diamond,2007).

외부적인 접근과 더불어 내발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오히려 스스로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당사자)들의 개별적 행동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바꿔보는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에서 자신의 행동 변화를 혼자서 시도하기에는 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CBPR은 연구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의식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본 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긴 하지만, CBPR의 내재적 과정과 '연극적 활동'의 내재적 과정이 유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적 방법은 개개인이 '실험 행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CBPR에서 의식화 과정을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CBPR 에서 '연극적 활동'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평등 속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을 인식하고, '사회(구조)'를 인식하고, 나아가 그 속에서의 행동 변화를 시도해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김새롬(2019). 건강증진사업에서 권력강화적 참여의 과정, 보건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나영 (2017) 아우구스토 보알(Augusto Boal)의 '조커 시스템(Joker System)' 연구, 연극예술연구, 10, 51-75.
- 시민건강연구소(2018)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도서출판 낮은산
- 시어도어 다이먼(2017) 배우는법을 배우기(원성완 옮김), 민들레, (원서출판 2003)
- 유승현(2009).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의 적용방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6(1), 141-158.
- 이대훈(2016).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평화교육, 민.
- 파울로프레이리(2018). 페다고지, (남경태, 허진 옮김), 그린비, (원서출판 1970; 1993)
- David Diamond(2007). Theatre for living – the art and science of community-based dialogue, Trafford.
- Nina Wallerstein, Bonnie Duran, John G. Oetzel, Meredith Minkler(2017).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for Health: Advancing Health and Social Equity, Third Edition, Jossey-Bass.
- Patricia Leavy(2015). Method Meets Arts : Arts-Based Research Practice(2nd ed.) , Guilford Publications.
- Patricia Leavy(2015). 융합연구 방법론 - 문제중심형 초학제적접근방법, (송인한, 옮김). (주)박영 story, (원서출판 2012).
- Patricia Leavy(2018). 예술기반 연구의 실제. (김정희, 신승렬, 강병직, 김정효, 김해경, 손지현, 안혜리, 옮김). (주)학지사. (원서출판 2015).